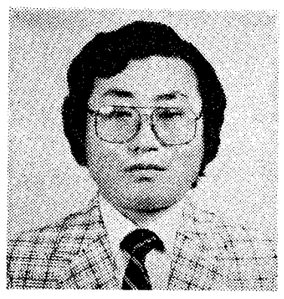
테러리즘과 아랍민족주의

—가다피의 政策과 중동평화



홍 순 남
<한국외국어대·정치학>

Ⅰ.리비아의 지정학적 중요성

리비아는 전략적으로 지중해 마그리브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북부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는 68만5천평방마일이나되는 방대한 지역이나대부분이 사막으로 천연보호막을 가진 미니국가라고 하겠다. 인구도 튀니지아의 절반정도인약 320만명이다. 북으로는 지중해를 머리에 이고 서로는 튀니지아와 알제리를 접하고 있다, 남으로는 니제르, 차드와 동남쪽으로는 수단과 접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이집트와 국경을 갈이하고 있다.

리비아의 지리적인 조건으로위 6개국과는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 지역정치변수가 운명적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 위치로 리비아는 북부아프리카의 수문장으로 지중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 지역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왔다. 서부사하라문제, 아프리카뿔의 지대인 이디오피아와 소말리아분쟁, 차드내란등의 아프리카분쟁과 PLO, 이란-이라크전쟁, 남북예멘문제등 아랍문제에도 적극참여하여왔다.

리비아의 석유와 전략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지제한적인 성격을 가진 소규모 다발분쟁지역인 아랍·아프리카문화권에서 리비아의 민족주의자인 가다피의 패권주의정책은 더욱 리비아를 지역분쟁에 개입하게 만들었다. 더우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1979)은 1975년 헬싱키평화선언을 무시한 강대국의 힘의 정치이론으로 역사진리인 적자생존법칙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격의 군사작전보다는 제3세계, 특히 아랍과 아프리카의 약소국가들을 정치적인 혼미속으로 빠져들게 하여 서로 분열하는 정치환경변화를일으켰다.

소련의 의존도에 따라서 아랍국가들은 모슬렘국가를 침공한 소련의 행위를 비난한 보수군주국가(이집트포함) 群과 소련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리비아, 시리아, PLO, 남예멘, 알제리같은 혁신세력으로 분열되었다. 이에 이란-이라크전쟁(1980.9) 으로 이라크를 지지하는 보수세력과 리비아, 시리아를 위시한 혁신세력의 이란지지는 아랍세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리비아의 이란지지는 시리아와 이라크양국간의 갈등관계에서 가다피정책목표인 통합을 시리아와 하려는 노력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가다피는 그의 민족주의이념을 종교와 문화에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란의 호메이니정권이 이슬람사상인 이슬람의 영광을 회복한 종교대국을 건설한다는 이슬람주의와 맥락을같이하는 점에서도 가다피이념과 같은방향에서 양민족주의자들의 정책적접근이 쉽게이루어졌다. 1969년 9월1일가다피는 초급장교인 대위의 신분으로 리비아군사쿠데타에 성공하였다. 1967년 6일전쟁에서 이스라엘에대한 아랍측의 패배는 아랍민족에게 국가건설과 단결을일깨워준 전쟁 이었다. 더우기 1968년 리비아선거의 부정부패는 그다음해에 이드리스 사누시국왕이 터어키를 방문하는중에 가다피의 무혈쿠데타를 성공시키게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한 직접원인으로 분석되고있다.

리비아는 1951년 영·불에서 독립하였지만 실질적인 독립은 1963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독립국가수뇌회담에 참여하고 나서 친마그리브정책을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주권독립하였다고 하겠다. 1942년까지 이탈리아 지배, 그후 영·불의 지배와 독립후에도 친서방정책을 취하여 왔었다. 리비아의 친마그리브정책이란 반식민서구정책과 친아랍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로코와 튀니지아는 1956년에 독립하였으며 알제리는 1962년에 독립하였다.

당시 리비아의 형식적인 독립에도 불구하고 마그리브지역은 식민지상태에서 시대적 정치풍향이었던 반불투쟁을 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독립한 아프리카국가들은 반식민정책으로 마그리브정책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아디스 아바바의 아프리카민족주의자들의 회의에 참석한 후 리비아의 친아랍-아프리카 정책은 아프리카-아랍정치무대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리비아의 이 회의참석은 마그리브지역은 아니지만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리비아가 반식민정책과 마그리브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다피의 쿠데타성공은 새로운 가치추구를 위한 질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모로코왕가와 리비아왕가인 양보수세력간의 친화력때문에 가다피정권과 모로코는 대립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알제리와 모로코간의 서부사하라분쟁에서 리비아가 알제리를 지지하는 정치변화로 지역정치환경의 기류를 바꾸려는 새로운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리비아의 전략적가치에 대한 강대국의 경합현상까지 나타나 지역정치환경을 파괴시키는 다발분쟁에 리비아는 석유부에의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아랍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강화하려하고자 한다.

Ⅱ.가다피 정책과 정치 야망

리비아는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튀니지아, 수단, 모리타니아등의 아랍권 온건세력과는 다른성격을 가진 국가이다. 아랍세계에서도 시리아와남예멘, 알제리는 아랍의 대의인PLO 문제에 대하여서는 보다강경한 대이스라엘정책을 취하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중동평화정책에 도전하는 군엘리트출신 민족주의자들인 시리아의 아사드, 알제리의 부메디안과 리비아의 가다피는 친소정책을 통한 군대건설을하여왔으며 경제관계에 의하여친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는온건아랍세력권과는 보다 대립적인 입장이다.

가다피는 낫셀주의를 신봉하는 아랍민족주의자이지만 리비아의 정통성을 리비아의 역사유산에서 그 뿌리를 찾고있다.

가다피의 민족주의 정책인 아랍주의 정책은 이슬람을 통한 리비아와 다른 아랍국가들과의 통합정책이다. 가다피혁명사상은 문화,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의 청교도정신으로 복고주의적인 보수성을 강조한다. 반면 사회·경제·정치에서는 보다 세속화된 급진주의를 취하고있다. 가다피민족주의정치전략적의미가보다강한것이다.

아랍민족주의자들의 이슬람의 과거영광을 되찾자는 범이슬람정책목표는 같지만 정치이익에 의한 아랍통일을 주장하는 알제리, 시리아, 이라크와는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남예멘의 북예멘과의 통합정책보다도 현실성을 강조하지만 이슬람화라는 종교의미를 가다피는 강조한다.

가다피민족주의는 이슬람을 통한 아랍통합을 주장하는 범이슬람정책과 PLO大意를 뜻한다. 가다피는 이집트낫셀혁명이 아랍민족을 동원하는데실패하였다고 분석하고, 1973년 「인민혁명」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사회운동을 리비아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일으켰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이 운동참여는 가다피혁명원칙을 지키는데 보다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가다피혁명사상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가다피혁명목표는 자유, 사회주의, 통일이다. 경제문제를 이슬람사회주의를 통하여 해결하며 생산과 노동에 집단적인 참여를 통한 공평한 분배원칙과 반제국주의와 반시온주의를 표방하여 PLO를 포함한 전아랍민족통일을 국가목표로 삼고있다.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국가와 시민간에 자유와 개인과 개인간에 자유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리비아는 늦게 독립한 제3세계국가중 한국가이지만 제3세계국가의 공통점인 불안정과 빈곤및 인구문제를 해결한 국가이다. 석유의 부에 의하여 사회안정과 빈곤을 해결한 리비아는 국내정책성공으로 대외정책적인 정치외향적인 국가어다. 가다피는 주변국가들의 문제에 적극개입하여 그의 정치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오일달러에 의한 주변국가들에대한 경제원조정책과 혁명정신에 의한 새로운 질서의 추구는 아랍·아프리카전통보수세력보다는혁신세력국가군들과의접근으로급진주의정책을추구하고있다. 가다피는 이집트와 통합을 열망하였다. 그후 이집트가 캠프·데이비드평화협정으로 아랍세계에서 고립되고 친미정책으로 선회하자 시리아와의 통합에 보다 큰목적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가다피의 정치야망으로 이집트 또는 시리아와 통합하여 아랍세계의 강대국지도자가 되려는 것이다.

아랍의 통합사상은 아랍민족주의, 범아랍주의, 범이슬람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아랍의 통일과 가다피의 정치야망은 이집트와 시리아와의 끊임없는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약소국가와의 통합운동을 지속적으로 계획, 발표하여 왔다. 이 결과는 주변국가들의 분쟁에 개입하는 가다피의교정책의 문제점이 되기도 하였다.

국내요인중 1970년대 중엽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反가다피운동 또는 무데타음모등 反가다피정치인들을 튀니지아, 이집트, 수단등 주변국가들이 망명처 또는 물질적 지원을 하고있다. 1975년 8월 불발 쿠데타사건, 1975년말 전외무장관 알 하우니의 이집트망명, 1976년 신년초 벵가지대학생폭동, 1976년4월 튀니지아 뉴우스가 발표한 군인·시민총돌사건과끊임없는 군 쿠데타기도설등으로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가 좋지않았다. 이와같은 환경은 리비아의 국내정치문제와 관련된 국가와의 관계와 이들 국가내의 반정부요인을 리비아가 경제,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배후세력이 되어 지역갈등관계를 심화시키며 분쟁을 장기화시키는패권주의정책으로나타나고있다.

가다피의 민족주의성향은 급진주의정책이란 기존질서보다는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여 보다 친리비아적 정치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리비아는 석유에서 얻은 막대한 부를 이용하여 아일랜드저항군, 에리트리아, 필리핀, 로데시아, 서부사하라 폴리사리오 등의 반정부운동을 하는 저항군에게 재정·군사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포르투갈領인 기니, 모로코, 차드, 파키스탄, 우간다, 잠비아, 더 미국, 영국, 프랑스관계는 불편한 관계이다. 이는 군대건설을 위한 무기 공급원과 국가건설이란 차원에서 기술지원을 위한 장치이다. 가다피의 대외정책은 아랍-아프리카영내에서 리비아의 정치적 고립화를 가져왔다. 이집트의 아랍세계에서의 고립은 시리아를 레반트지역뿐만 아니라 아랍세계에서 정치영향력을 부상시켰으나 동시에 시리아를 고립화시켰다.

이라크와의 경합, 이집트와의 단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온건세력이 시리아의 레바논정책을 완화하려는 노력등이 시리아의 정치환경에서 제한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리비아가 대외정책을 국내정책보다 우위에 두는 것도 고립환경을 탈피하려는 정치노력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Ⅲ.가다피의 PLO 정책과 미-소강대국관계

가다피는 11-12세기에 존재하였던 리비아의 알모라비드와 알모하드 이슬람왕국에서 정신적 계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고있다. 이는 리비아적인 것이 아랍적인, 또는 아프리카적인 것보다 우선적인 리비아국가이익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가다피는 리비아와 주변아랍문화권국가들과 통합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1971년 이집트와 시리아의 아랍연방안계획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며 말타 (1971), 이집트(1972, 1974), 시리아(1975년이후 노력중), 튀니지아(1972, 1974), 수단(1972, 1974, 1985)등과 끊임없이 통합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노력이 범이슬람정책으로 설명되어진다. 가다피는 아랍민족통일과 PLO 해방문제를 아랍지도자들이 노력하지않는다고 불평하고있다.

가다피의 PLO정책은 과격분자들을 지원하여 친리비아세력의 강화로 PLO내에 정치영향력을 강화시켜 아랍세계에서 보다 큰 정치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이다.

1974년 가을 라바트아랍정상회담에서 PLO를 유일한 팔레스타인합법기구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하여 보이코트 하였다. 이후부터 아라파트 PLO 의장과는 불편한 관계였으나 1979년6월 PLO—리비아정상회담등으로 가다피는 PLO와의 관계강화를 노력하였다.

리비아와 PLO관계는 가다피혁명이념과 PLO정책간의 이데올로기차이에서 불편한 관계로 존속되곤 한다. 1979년말 리비아는 레바논에서 PLO군사활동을 중지한다는 튀니지아 정상회담에 PLO가 동의하였다고하여 리비아와 PLO관계가 약화된 것이 이를 잘 설명한 경우이다.

PLO는 독립적인 정치, 군사정책을 유지하려 하는 반면 리비아는 PLO내의 급진주의세력을 정치전략으로 이용하려 한다. 시리아가 「Saiga」 게릴라를 지원하며 이라크가 PFLP(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을 지원하는 것처럼 리비아는 소수과격분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예가 1985년10월1일 이스라엘기의 튀니지아PLO본부공습사건이다. 과거의 국경을 접하고있는 이익당사국간의 안보차원이라는 대의명분을 상실한 이와같은 테러행위는 정치적성격보다군사적성격으로이스라엘의서투른정책결정오류였다. 1982년6월 이스라엘의레바논침공도 PLO의품위를 정치기구에서 게릴라조직으로 분열시키는 잃은 것이 많은 정책결정이였다. 따라서 PLO 일부 강경집단들의 무질서한 국제테러행위를 자행하여 PLO의주권을 호소하는 홍보정책으로삼고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와같은징후는 리비아의 관여와함께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1985년말 빈과 로마공항의PLO 과격분자들의 무차별 총격사건은 리비아의 지원을 받는 아부니달의 조종으로 판명되었다. PLO의 아라파트의장은 이사건을 만행으로비난한반면 리비아는정당화하는발표를하였다.

미국은 대리비아 경제제재조치와 군사적 압력을 동시에 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지중해 6함대의 40여척의 전함까지 동원하여 리비아정보구역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하여 군사시위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등 우방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같은 미국의 군사, 경제제재는 소련에 대한 경고이며 중동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군주정권시대 리비아의 친서방정책은 가다피혁명 다음해인 1970년 미·영과의 군사조약이 파기되면서 친소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반대현상으로1972년 리비아는소련과우호관계를체결하여무기공급원을확보하였다.

소련은 쿠웨이트(1963), 오만(1985)과 국교관계를 가지면서 아랍세계의 강·온 양세력에영향력을 부식시키고 있다. 소련이 중동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중동정책을 취하지 않을수없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간침공으로 미국은 페르시아만 안보와 홍해안보, 더나아가서는 지중해와 인도양의 안보를위한 중동평화군으로 신속배치군 (RDF) 을 창설하였다. 오만과 소말리아, 이집트에 군사기지를확보하고「브라이트 스타」라는 합동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하고있다. 리비아의 아프리카와 아랍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은 가다피의 민족주의정책만큼 강대국에게 있어서도 이익사활지대이기때문이다.

反시온주의로 全아랍민족 통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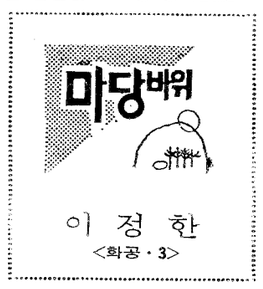
리비아의 테러활동 지원은 아랍권 분열 초래

총학생회 출범을 보며

"" "" "" "" "" ""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계절이 찾아옴과 동시에 제18대 총학생회의 출범이 3월 6일 있었다. 획일과 강요만이 누비던 지난날의 대학 캠퍼스를 생각할때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룬 총학생회는 가히 많은 기대에 부풀게 해왔다. 우리의 글과 말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학우들간의 관료적 성격으로 존재하던 학도호국단이 작년 제17대 총학생회의 출범으로 그 막을 내리고 우리 의사의 대변자로서의 총학생회가 부활되었다.

지금 그활동영역이 확산되고 대학인들의 명실상부한 최고자치기구로 발전했다. 그러나 노력의 결과로 확보된 공간인 총학생회는 그내용을 채워주기위한 활동을 하기에는 제도적 모순으로 아직도 많은 제약이 대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다. 경희학우들의 열띤 성원속에 구성된 제17대 총학생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우들의 기대에 못미쳤던 일말의 학내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의 해결과 사회 민주화를 위한 사회의 여러가지 모순에 대한 비판적 기능기구로서의 효율적인 실천을 그주된 공약으로 내



이 정 한
<확공·3>

세우며 학우들의 뜨거운 지지속에 새로이 제18대 총학생회는 그모습을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적 상황속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가치체계 조차 상실해 나가고 있다. 흔히 듣기좋은 말로 「대학인은 언제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겨레와 국가에 뿌리박은 전통과 주체성을 의식하여 이를 고양 발전시키고 새 세계를 창조하는 지성인으로서 면학에 힘쓰고 주체적 실천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된다. 말보다 쉬운것이 없듯이 실천보다 어려운 것 또한 없다. 그만큼 우리 대학인의 현실은 참된 양심을 갖고서 그 양심에 따라 실천으로 옮기기엔 너무나 많은 장애요소들이 있다.

지난번에 치루어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중에 제18대 총학생회장의 인사말 중 「오늘의 대학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같이 결코 낭만적이거나 즐거운 것만은 아니며 또한 허리 잘린 조국의 현실이 가슴 아프게 합니다」라는 말이 있었다. 이 말은 비단 총학생회장 한사람만의 심정이 아니며 경희인 전체 나아가 조국의 전 대학인이

주인된 마음으로 참여를

총학생회는 진정한 대변기구 역할을 위해 언제나 열려있는 문, 그 문은 살아있는 양심을 더욱 약동시키고 구겨진 양심을 펴줘야 한다

동시에 지니고 있는 심정을 대변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있다.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처럼 끈질기게 이어온 총학생회가 이제 제18대의 일기를 시작하며 생동하고 있다. 18대 취임식이 치루어진 지금 참으로 우리가 총학생회를 통해 얻고자하는것이, 이루고자 하는것이 결코 총학생회와 경희학우간의 단절된 관계속에서가 아니라 끈적끈적 이어지는 두터운 신뢰 속에서 획득될수 있음을 감지할때 총학생회와 동시에 경희학우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총학생회는 경희인 전체의 얼굴임을 알고 항상 세수하듯 청결한 자세로 경희학원 내에 얼룩진 오점들을 씻어내야 할것이다.

우리 경희인 전체의 마음이 총학생회를 통해 대변되고 진정한 대변기구로 작용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는 언제나 열려있는 문이 되어야 한다. 그문은 살아있는 양심을 더욱 약동시키고, 구겨진 양심은 바로 펼쳐주며 전 경희인을 하나되게 항상 종된 자세로 끊임없이 꿈틀거려야 할것이다. 동시에 조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냉철한 이성과 판단을 지니고 뜨거운 비판의식으로 이 시대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주체적 실천의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

결코 학우들의 비판을 저버려서도 안되며 동시에 자기비판적 자세를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총학생회에 대한 당부와 아울러 경희 학우들께 바라는 바는 제18대 총학생회가 결코 타의나 왜곡속에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이룬 것일진대 우리의 무관심이나 방관은 총학생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총학생회의 제반활동에 경희인 전원은 언제나 주인된 마음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며 가꾸어 나가야한다. 참여없는 비판만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특히나, 어려운 난관을 뚫고 합격의 영광을 차지한 신입생들의 총학생회에 대한 관심은 보다 가일층된 모습을 가짐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제18대 총학생회의 취임을 다시한번 축하하며 총학생회 임원을 이루는 학형들의 건투와 보다 알찬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NEW CAMPUS LIFE '86 SERGIO VALENTE COLLECTION

우리의 젊음, 그 자신있는 표현
써지오·바렌테

젊음, 낭만, 대화, 만남, 인생 그리고…
대학 생활의 모든 것, 젊음의 모든 것을 새롭게-
써지오 바렌테라면 그 자체가 젊음.
자신있는 젊음이 여기 있다!
우리의 자신있는 패션언어 -
써지오·바렌테.

언제나 새로운 스타일 써지오·바렌테

Sergio Valente®

써지오·바렌테는 삼도물산이 미국 잉글리쉬 타운사와 기술제휴로 생산 시판합니다.

삼도물산주식회사
국내영업본부 : 635-1771~5